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
		배포일시	2019. 12. 19.(목) 총 7매(본문3, 참고4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	담 당 자	·과장 김유진, 사무관 박덕준 ·☎ (044) 201-4094	
	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		·과장 이승환, 에너지관리팀장 강승태 ·☎ (064) 728-2832	
	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		·부장 이동영, 과장 박한결 ·☎ (02) 2187-4147	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20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20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-제주사-감정원 맞손,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청정제주 만든다

-20일 제주시 단독주택 제로에너지건축(ZEB)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20년 공공부문 단계별 의무화 앞두고 민간부문 확산 위한 지원 확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제주시(시장 고희범), 한국감정원(원장 김학규) 등 3개 기관은 「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(MOU)」을 12월 20일(금)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.
 -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하여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.
 - “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(탄소없는 섬, Carbon Free Island)”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“제주시 제로에너지 하우스 지원사업”을 시작한다.
- 이를 위하여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,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

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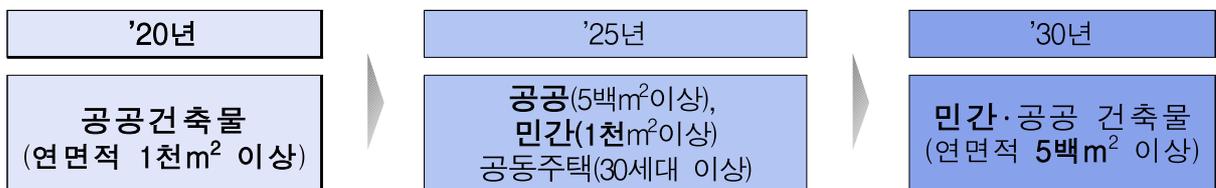


-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,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(건축물에너지효율 1++등급 이상 취득시)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, 세제 감면*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.

* 건축기준(용적률·최대높이) 최대 15% 완화, 취득세 최대 15% 감면

- 업무협약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“제로에너지 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, 민간부문 제주도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<ZEB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>



- 고희범 제주시장은 “제주시는 그동안 풍력 발전단지 운영, 전기차 확산 등 저탄소 정책을 실현하여 왔는데,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건물분야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중요하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 에너지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.”고 언급했다.

- 김학규 감정원장은 “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설계단계에서 준공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**윤희유 역할**을 하겠다.”고 약속했다.
- “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”의 자세한 내용은 ‘20년 2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,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청 (064-728-2832) 및 한국감정원 기술상담센터(064-722-6875)에 문의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덕준 사무관(☎044-201-409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
국토교통부-제주시-한국감정원 업무협약서(안)**

국토교통부, 제주시, 한국감정원(이하 “각 기관”이라 한다)은 “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” 청정섬 제주를 위하여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.

1. **(기본방향)** 각 기관은 서로의 전문성과 정책을 존중하며 탄소제로 제주를 목표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공유하고 제로에너지건축의 민간영역 확산을 위한 ‘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’ 추진에 협력하며 공유모델을 마련한다.
2. **(협업내용 및 역할)** ① 각 기관은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별 역할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.
 1. 국토교통부 :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모델 개발을 위한 행정적·기술적 지원 등
 2. 제주시 : 탄소제로를 위한 건물부문 제주형 감축 모델 발굴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마련, 프로그램 운영 등
 3. 한국감정원 : 탄소제로를 위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교육, 홍보 지원 및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 운영 등
- ② 개별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각 사업 별로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3. (공유모델 확산)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도출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모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4. (협약의 효력) 이 합의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상호 동의하에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협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명,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. 12. 20.

국토교통부
국토도시실장

제주시
시장

한국감정원
원장

안충환
(서명)

고희범
(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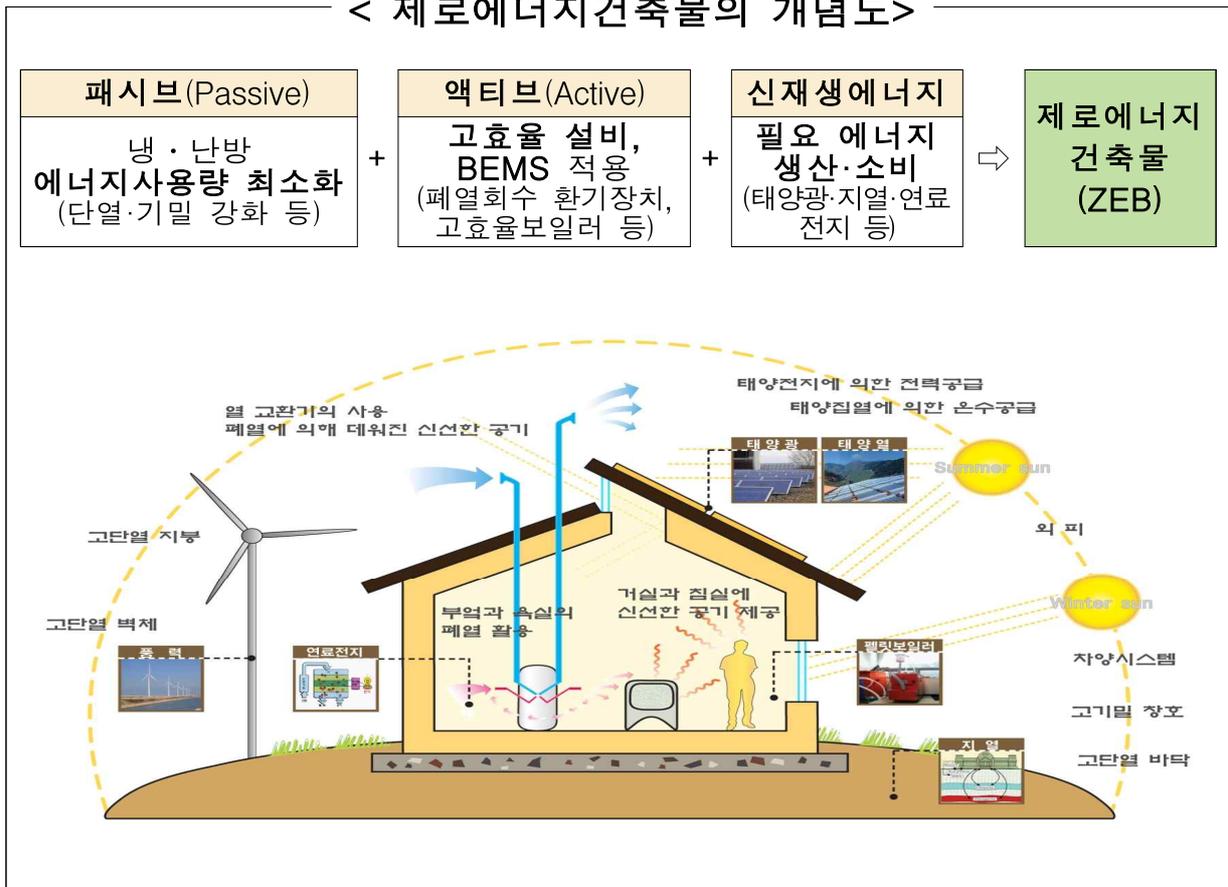
김학규
(서명)

□ 단열·기밀성능 극대화로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(패시브), 고효율 설비 적용(액티브) 및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량을 생산(신재생)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

※ ‘제로에너지빌딩’은 사전적으로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 (Net Zero)이나 현재의 기술수준·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(90% 감축)하는 건축물(Nearly Zero)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추진

- (패시브) 고단열·고기밀 외피 및 차양 등의 건축요소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극대화
- (액티브) 다른 기자재보다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 높은 성능으로 운전 가능한 고효율 설비 적용
- (신재생) 태양광·지열발전·연료전지 등 신·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

<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개념도 >



-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(1++등급 이상)을 취득한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민간영역으로 확대
- 건물부분 에너지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자립기반 마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비 : 1억원
- 지원내용 :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지원(보조율 50%)
 - 1주택 최대설치용량 : 10kW
 - 설치단가 : 산업부 태양광 지역지원 사업 기준 등을 적용

*태양광 설치비 추가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(제주지역본부)과 협의 중
 - 기존사업인 주택태양광(최대3kW)지원 사업으로 설치비 30% 추가 지원

- 지원대상
 -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++등급 이상을 받은 건물
 -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660㎡ 미만인 건물
 - * 연면적은 단독주택(다가구주택) 최대 연면적 기준으로 제한
- 선정방법 : 공모를 통한 선정 후 내부 심사 결정

□ 향후계획

- 음영 등 지리적 여건으로 태양광 설치 불가 지역의 경우 폐열회수환기 장치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고효율 주택 확산 도모